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성령(聖靈)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며, 마음이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 주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 주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다 만민교회 사회복지대회서 감사장 받아

일본 이다 만민교회가 지난 21일 제54회 이다시 사회복지대회에서 감사장을 받은 소식 등 국내외 뉴스.

보증, 서야 할까요? 서지 말아야 할까요?

친구가 찾아와 보증을 부탁한다. 남을 돕는 것은 선한 것이니 보증을 서 주어야 할까? 성경에는 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기록돼 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조리합니다”

조리 봉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는 우리 교회 조리사 선교회 총무 김수찬 형제의 간증과 ‘만민 쉼프의 모임’ 조리사 선교회 소개

만민뉴스

제470호 2011년 2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태국순회 손수건집회, 폭발적인 권능 나타나



■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는 강사 이성철 목사(오른쪽)와 태국어 통역을 담당한 이재원 선교사(사진 1). ■ 치앙다오 손수건 집회(사진 2)에는 고산족 7개 미전도 마을에서 참석했다. ■ 치앙라이 믿음의 교회 손수건 집회(사진 3). ■ 손수건 기도로 치료받아 간증하는 사람들(사진 4-1, 2, 5-1, 2). ■ 치앙라이 라디오 방송에 초청받아 특송하는 빛의소리중창단(사진 6).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나타났던 ‘회한한 능’의 역사(행 19:11~12)가 불교 나라 태국에서도 펼쳐졌다.

지난 2월 17일, 6박 7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태국 선교팀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기도받은 즉시 치유되고, 시공을 초월한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 13일, 선교팀은 차이쁘라칸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GCN(세계 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를 아는 많은 환자들이 선교팀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한 불신자 할머니는 강사 이성철 목사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즉시 통증이 사라져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

14일에는 농눅 목사(에덴 골드 만민교회)와 치앙다오 시 지방 정부의 협력으로 치앙다오 고산족 7

개의 미전도 마을 손수건 집회가 개최됐다. 지역정당 대표 및 읍장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불신자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이 각종 통증, 디스크, 경련, 마비, 관절염, 위장병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았다. 이에 현지 영향력 있는 몇몇 분들은 만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교 출장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 하나인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실감케 해 주었다. 또한 GCN 방송과 태국어 만민뉴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 서적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만민의 사역을 잘 알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12일 치앙라이 만민교회(담임 이재원 선교사) 창립예배와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변 나라에서까지 많은 목회자와 성

도들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해 주었다. 한 목회자(치앙라이 라디오 관계자)는 “만민의 권능 사역이 태국에 너무 절실하다”며 자신이 직접

라디오 방송 채널 한 개를 확보하여 성령 복음과 권능 역사를 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해 6월, 치앙라이 만민교

회는 13명이 모여 개척예배를 드린 후, 현재 많은 지교회와 협력교회와 함께 세계교구화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치앙다오 손수건 집회에서 한 부부가 병으로 심히 연약한 딸을 위해 손수건 기도를 요청했다. 딸의 이름은 로사린(15세, 사진 1-1~2)이다. 이 소녀는 지난해 12월경 내장 손상과 심한 패혈증으로 고통을 받던 중 위독해져 지난 1월 12일 의사로부터 가망이 전혀 없으니 임종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날 밤 농눅 목사에게 간곡히 기도를 요청했다. 농눅 목사는 GCN 방송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가 나올 때 한 손을 TV 화면에 얹고 전화를 통해 소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이후 그녀는 병세가 급격히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바로 옮겨졌고 얼마 후 퇴원했다.

15일, 선교팀이 로사린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앉아 있었다. 이성철 목사는 하나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말한 뒤,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다. 순간, 로사린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선교팀이 집을 나올 때까지 계속 서서 환송해 주었다.

같은 날, 방콕 프라쿤교회 초청 손수건 집회에서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태어날 때부터 전혀 말을 못하던 완차이(남, 8세, 사진 2)가 먼 지역에서 불신자 부모와 함께 집회에 참석해 기도받은 즉시 말하는 등 기도 받은 사람 100%가 치유됐다. 또한 치앙라이 믿음의 교회, 미양노이 교회의 초청을 받아 열린 손수건 집회에서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계속됐다.

